

2021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정기대관 공모 심의 총평(1차 연극)

- 회의일시 : 2020. 12. 21(월) 10:00~13:00
- 회의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스튜디오 다락
- 심의위원(가나다순) : 박지선, 정안나, 정진세, 조형준, 정순민

이번 2021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대관심의는 1차와 2차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1차는 연극과 무용, 다윈, 뮤지컬, 기타(음악, 전통) 장르에서 작품을 선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본 심의평은 1차 연극분야의 심의위원이 참여한 장르별 심의에 대한 총평입니다.

2021년은 예년과는 다르게 가능한 대관일수가 극장별로 4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증가하였습니다. 현장의 대관요구를 수용한 극장에서 좋은 공연을 상연하기 위해 최대한의 공연일을 확보한 것입니다. 대관공고일도 40일 이상 진행되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건의 접수가 이뤄졌습니다. (총 261건으로 전년대비 96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장르별 심의위원으로 총 5명이 연극장르 대관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심의에 앞서 극장에서는 심의위원들에게, 2021년의 대관공모의 주안점을 전달하였습니다. 무용이나 연극으로 특성화되어 있는 ‘듯한’ 기존의 극장의 관성 보다는, 개별 공연장 조건에 적합한 공연을 배치하자는 취지를 전하였고, 심의위원들 또한 이에 공감하였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에 대한 관객-무대 거리두기 등 방역관련 사항을 수용한 공연만 신청가능토록 하였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안전 및 인권사항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향후 대관 운영 시 성희롱, 성폭력 관련자에 대한 지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공유하였습니다.

1차 심사에서 심의위원은 접수된 작품들을 살피고 대관신청 대상자의 적격성 심의와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극장 대관일 조정을 판단하기에 앞서, 대관 대상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일정 조정은 2차 심사에서 무용분야와 함께 이뤄지게 될 것이기에, 일단은 1차 심사의 방향성은, 아르코 및 대학로 예술극장의 상연에 적합한 공연을 가리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심의기준은 공고에서 밝힌바와 같이, 공연작품의 예술성, 공연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공연작품의 해당 장르 파급효과, 신청단체의 활동실적 및 운영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기준의 충족도와 기대도가 ‘보통’ (75점 이상) 이상을 차지한

작품을 1차 심의의 통과대상으로 하였고, 선정된 작품의 수, 일정에 대한 경합여부 등에 상관없이 모든 공연을 2차에서 논의토록 하였습니다.

1차 심의에 앞서 심의위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하였습니다. 대관에 있어서 세부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혹은 해당 작품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심의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경우에는 그간 축제 혹은 축제성 행사를 위한 대관이 있어 왔음을 감안하더라도, 대관공모에 임하는 시점에서 어떤 작품을 상연할지에 대한 계획이 부재한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불가하고 이를 관용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힙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작품상연에 대한 수요와 열망이 높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작품상연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대관이 이뤄진다는 점은 용납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기조는 앞으로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대관 심의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다만, 신춘문에 등의 전문성 있는 심사절차를 거쳐 미리 일정 수의 희곡 작품이 확보되는 경우만 예외로 하였습니다.

개별 작품에 대한 1차 심사의 의견 및 총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심사는 작품을 창작 지원하는 심사와는 달리, 아르코 및 대학로 예술극장에 대한 대관 여부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작품들의 경향성이나 전체적인 인상을 따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은 창작자와 관객들이 선호하는 극장인 만큼, 상연에 있어서 동시대적인 의미가 가장 크게 발휘될 수 있는 지점에 주목하려고 했습니다. 공연의 다양성과 극장에서의 확장된 경험을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작품이 갖고 있는 의제와 단체가 지향하는 바, 그리고 오늘날의 관객과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극장에서 제안한 관객개발 프로그램과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지침 또한 눈여겨 보았습니다.

대체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202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관객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딱히 특별한 고민 없이 홍보마케팅 방법을 나열한 경우도 더러 눈에 띄었습니다. 잘 만든 공연을 어떻게 여러 관객과 만날 수 있는지, 새로운 시도에 대해 관객들의 반응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고민이 많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좋은 극장에서 공연을 하면 알아서 관객이 올 것이라는 수동적인 발상을 가진 기획서 보다는, 배리어 프리 플랜을 비롯하여 관객을 맞이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는 기획서에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본 심의는 인터뷰 심사를 따로 거치지 않고 서류 심사로 1차 심의가 완료되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은 지원서 안에 계획이 잘 정리되어 있는지를 세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대관에 임한 많은 단체들이 극장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양질의 우수한 공연

을 제안했음을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연예술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작품이 있음을 실감하였습니다. 최근, 미투 운동과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며, 관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깊이 있는 연극체험을 나누고 싶다는 열망과 의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점수대에 몰려있는 상황으로 아쉽게 선정되지 않은 우수한 팀이 많습니다. 그 경합구간에 특히나 젊은 창작팀들이 있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해석이나 관점이 새롭지는 않지만, 극적인 형식이나 현장에서의 무대 효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상연을 계획한 작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들은 우선순위로 고려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1차 심의를 통해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이 특정한 주체만을 파트너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여러 주체들을 파트너로 삼고자 하는 변화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는 대관기간이나 대관단체의 양적인 변화만으로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학로에 위치한 공연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공공극장이 어떤 행보를 취할지, 그 정체성과 철학을 어떻게 설정해갈지를 주목하고 함께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021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정기대관 연극분야(1차) 심의위원 일동